상림

■ 코스 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에서 고운 최치원을 만나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가장 오래된 인공림	
2	상림입구	사랑나무가 있는 천년의 숲	생태
3	함화루	옛 읍성의 문	문화재
4	이은리 석불	함양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석불	문화재
5	사운정과 화수정	최치원 선생과 금호미에 얽힌 전설	문화재
6	역사 인물 공원	함양을 빛낸 인물들	민속
7	물레방아	연암 박지원이 보급한 물레방아	민속
8	금호미 다리	최치원 선생과 금호미에 얽힌 전설	민속
9	연밭과 석산	상림의 제일가는 명소	생태

1. 구간 소개

이곳은 신라시대 때 최초로 조성된 숲, '상림'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숲이 아니라 홍수재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숲입니다
현재 상림은 19만여 제곱미터, 6만 여 평에 걸쳐 조성돼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축구장 두 개 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곳에는 120여 종의 나무가 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쉼터이면서 자연학습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시지요? 하하 바로 접니다.
최치원. 제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셨지요?
신라시대 진성여왕 때 제가 이곳 함양에 태수로 왔을 때 상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문장가로서는 널리 이름이 알려졌지만 숲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좀 낯선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곳 함양에 숲을 만들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2. 상림 입구

마음을 안정시키는 초록빛과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좋은 기운,
거기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양한 요소들까지!
나무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낌없이'주고 있습니다.
함양 상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숲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태수로 왔을 때, 함양은 해마다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요. 우리 백성들이 풍수해 피해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랜 고민 끝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둑을 쌓아 강줄기를 돌리고 일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자연으로 막아보자는 생각이었지요. 제 계획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숲을 만든 다음해부터 풍수해 피해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대관림이라고 지었으나 상림과 하림으로 나누어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하림일대는 민가와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상림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산을 다 하고 심어 놓은 건 아니지만요, 이곳에는 현재 120여 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년을 품은 나무 전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이 숲은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되어있기도 하죠.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상림입구에 있는 연리목이랍니다.
연리목은 뿌리가 다른 같은 종의 나무의 줄기가 맞닿아서 마치 한 몸처럼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두 나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인간의 사랑이나 부부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상림의 연리목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 느릅나무과의 느티나무와 자작나무과의 개서어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연리목 자체가 흔치도 않을뿐더러 느티나무와 소나무, 느티나무와 감나무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느티나무와 개서어 나무가 이어진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 연리목은 이곳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림을 찾는 많은 분들은 이 나무를 두고 혼인목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나면 연리목은 뿌리는 다르지만 같은 종의 나무가 접촉하여 공생하는 경우고 이곳의 나무는 뿌리와 종이 모두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죠.
천년의 숲이라고 불리는 상림에서 자라고 있는 연리목이기 때문에 '천년의 약속' 또는 '사랑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랑나무를 만지고 한 바퀴 돌면 연인간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전설이겠죠?
하지만 왠지 한 번 따라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3. 함화루

상림을 거닐다 보니 함화루라 불리는 누각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누각은 함양으로 들어오는 남쪽 읍성의 문이었습니다.
옛 이름은 '멀리 지리산이 보인다'라는 뜻의 망악루였죠.
함양에 들어오는 문은 동, 서, 남쪽에 있었는데요. 망악루는 남쪽에 있던 문으로 이곳에 올라 지리산을 바라보면 천왕봉이 보인다고 해서 망악루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김종직선생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곳에 올라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니, 선비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소이기도 했던 거죠

사실 망악루는 일제강점기 때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답니다.
하지만 1932년, 고적 보존회의 대표이신 송계 노덕영 선생이 사비를 들여 이곳으로 옮겨놨지요.
앞서 함화루는 함양을 드나드는 남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다른 역할도 했었답니다. 어떤 역할이었는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지금은 상림 숲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읍성의 문이었던 함화루는 특이하게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누각의 다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일층에 기둥을 보면 홈이 파져있거든요. 홈이 파져있으니까 예전엔 칸막이가 막혀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장고 역할을 했어요. 누각이니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도구들을 넣어두는 수장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 하고 있죠."

함양의 관문이자 선비들의 학문적 ,정신적 교류 장소였고 수장고의 역할도 했던 함화루.
원래 위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자칫 못 볼 수도 있었던 함화루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4. 이은리 석불

상림을 걷다 보면 훼손이 심하게 된 석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이은리라는 마을의 냇가에서 발견된 석불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이은리 석불'입니다.
얼핏 보면 앉아 있는 좌불상처럼 보이지만 형태는 서있는 부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는 훼손된 몸통아래부분이 잘려진 상태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이은리 석불의 본래 위치는 근처 망가사라는 절에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절은 사라지고 잦은 홍수로 인해 떠밀려서 이은리 냇가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곳은 워낙 홍수피해가 심했던 곳이 였으니까요
몸통, 손, 코 등이 심하게 훼손돼 있지만, 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을 봤을 때, 확실히 부처의 모습입니다.
다만 보통 부처는 머리카락 나발형태 즉, 꼬불꼬불한 소라모양의 머리카락으로 표현되는데, 이은리 석불은 민머리 형태라는 게 특이한 점이죠.

후대 사람들은 이 석불이 옷의 주름이나 음각으로 새겨진 눈 등 조각의 기법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의 것이 아닌가 하더군요.
근데 재밌는 건 이은리 석불은 보물이나 국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 찾아 와서 기원을 드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은리 석불 주변을 누군가 새벽마다 와서 청소를 해놓고 가셔서 이 주변은 항상 정갈합니다
대사찰의 보살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곳 함양민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살상보다 귀한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5. 사운정과 화수정

함양은 저 같은 선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고장답게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들이 꽤 있답니다.
상림안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정이란 곳과 또 하나는 화수정이라는곳인데요,
사운정은 1906년에 쑥스럽게도 저를 기리는 마음으로 후손들이 세운 거구요,
화수정은 사운정이 세워지고 몇 십 년 후에 파평윤씨 문중에서 세운 거랍니다.
'화수회'라고 하여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데 '화수정'도 이런 모임을 같기 위해 세운것이라고 하네요

사운정의 원래 이름은 '모현정'이었는데요, 저의 호인 '고운'을 따서
'고운을 생각한다'는 뜻의 '사운정'이라 바꿔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장가로 좀 이름을 날렸었죠
그래서 '사운정'에서는 해마다 각종 문예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상림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잠시 쉬는 위치로도 아주 훌륭한 곳이 사운정이랍니다.
하하... 제가 너무 극찬을 했나요?

사실 화수정도 풍광은 참 좋습니다.
화수정은 70년대 후반에 세워진 것이라 사운정처럼 그다지 고풍스럽지는 않지만
전망이 아주 훌륭한 정자랍니다.
여름철에는 연밭이 있어 150여 종의 연꽃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요.
거기다가 제 이름을 딴 산책로가 한 눈에 보여 시야가 시원합니다.
자, 그럼 조용히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죠

자, 저도 오랜만에 사운정에 앉아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6. 역사 인물 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의 정기를 이어 받아서 그런가 함양에선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 됐답니다. 물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도 있지만 이곳에 와서 함양을 빛낸 인물들도 있지요. 바로 이곳이 그들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는 인물 공원이랍니다.

2001년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큰 인물들의 흉상과 비석 등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 가운데는 저의 흉상이 세워져 있군요,
제 양 옆으로 각각 다섯 분의 흉상이 모셔져 있답니다.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함양출신의 고려 말 충신 조승숙 선생, 조선전기 성리학의 대가 일두 정여창 선생, 연암 박지원 선생등이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함양출신으로 청백리에 오른 청렴한 선비 한 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일로당 양관선생입니다.
선생의 고고한 기상과 낮은 몸가짐이 어떠하였는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인물공원에 오시면 함양을 빛낸 열 한분이 모셔져 있는데 함양출신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함양출신으로 인품과 학문이 드높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양관선생입니다. 일로당 양관선생은 조선초기의 학자로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는데 함양 효리마을 출생입니다.

'청백리'란 청렴한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요, 자기자신의 품행단정과 가내까지도 청백하여 선비사상의 최고점에 달하는 이상적인 관료상을 가르킵니다.
선생이 얼마나 청렴했는지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이 덕천군수를 마치고 행장을 꾸려 나올시에 딱 세가지만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두보의 시집과 거문고 그리고 삼베이불 한 채 뿐이었다고 합니다. 간소한 선생의 행장이 임금께 보고되어 청백리안에 오르게 되고, 또 임금은 화공을 시켜 선생의 행적을 그려 어전벽에 걸어놓고 관리들이 외직으로 부임 받아 나갈 시에 그림을 가리키며 선생의 행적을 본받으라고 임금께서 친히 명했다고 합니다.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선생의 곧은 관료정신과 몸에 밴 검소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생의 옥같이 맑은 청렴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7. 물레방아

함양산천 물레방아는 물을 안고 돌고
우리집 서방님은 나를 안고 돈다
등구 마천 큰애기는 곶감 깎기로 다나가고
효리 가성 큰애기는 산수 깎기로 다 나간다
말을 타고 꽃속에 들어 채를 치고 돌아보니
연꽃안에 반달이네 말입에는 풀내 나고 님의 입에 향내 나네
오래비 올케야 이 곶감 팔아 비취금 장만해서 날 외어 주소
칠월달이 어서가면 엄마집에 가련만은 엄마집에 가거들랑 석달 장마 지와주소
잠아 잠아 오지마라 이삼 삼아 옷 해입고 산천초목 구경가자
배가 고파 받은 밥상 된장단지 옆에 놓고
너 떠 먹고 나 떠 먹고 저 건너 갈미봉에 비 묻어 온다
어화 세상 농부들아 장기지고 논에 가세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함양 민요 '곶감깎기'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민요랍니다.
근데 이 민요 속에는 함양의 자랑거리인 연꽃과 곶감 그리고 물레방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녹아 있군요
함양은 정자도 많지만 물레방아의 고장으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함양이 물레방아 고장이 된 것은 후배 연암 박지원 선생의 공이 컸죠.
18세기 대표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은 당시 오랑캐라 불리던 청나라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열하일기'는 중국 청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 쓴 여행견문록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청나라의 풍물을 소개하면서, 당시 청나라의 선진문물과 학문을 기록하였는데 발전된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출간 당시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연암 선생은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좋게 바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분입니다.
그 일례로 연암 선생이 함양 안의현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레방아 등을 실용화시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노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림에도 물레방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곳에도 실제 쌀을 생산하던 물레방아와 창호지를 만들 때 쓰던 물레방아가 실물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 금호미 다리

함양 상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은근히 욕심을 내는 게 있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자꾸 저에게 와서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금호미가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하지만 그건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 여러분이 금호미를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구요? 말 그대로 상림에는 금으로 만든 호미가 이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웬 금호미 ?
함양의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상림을 조성할 때 가야산이랑 백운산, 또 지리산에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 때 제가 금호미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 숲 어딘가에 있는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관시켜서 금호미 모양을 새겨 넣은 다리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걸 찾겠다고
매년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금호미 찾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금호미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어디 있냐구요? 묻지 마십시오. 저도 세월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짭니다!

금호미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두시고, 이곳의 풍경을 바라봐 주세요.
개울이 흐르는 곳에 세워진 금호미 다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군요.
아!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노는지 제가 다 부러울 정도지요.
천연기념물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
상림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또 한가지 생겼군요

아! 그러고 보니 이곳은 저의 어머니와의 추억도 어려 있는 곳입니다

치원　어머니, 걷기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어머니　아주 좋구나. 홍수도 막아주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훌륭한 곳을 지었다니, 우리 아들이 장하구나.
치원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 저도 참 좋습니다.
어머니　어이쿠!! 저...저..저것은...!! 배..뱀!! 에구구,,, 흉측스러워라...
치원　뱀이요? 아니 저것이!!!
치원　어머니 괜찮으신지요?
어머니　괘,괜찮다... 이곳에 혼자는 못 오겠구나... 갑자기 저런 것들이 나타나 나다니..
치원　아...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필코 이곳에 뱀이며 해충들을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일까요, 아니면 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저는 상림에 뱀과 개미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주문을 숲을 향해 진심으로 외웠습니다.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 이후로 정말 상림에는 해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구요?
직접 걸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9. 연밭과 석산

푸르른 나무와 기품 있는 정자,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불상과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물레방아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상림은 참 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와도 이곳을 놓치면 섭섭합니다.
바로 상림의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연밭이죠.

상림이 있는 상동마을은 원래부터 연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상림 주위에 이렇게 대규모 연밭 단지를 조성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여름이면 이 곳은 상림과 어울려 함양 최고의 명소로 인기를 얻는데요,
벼농사로 더 이상 큰 소득을 못 올린 농민들은 함양에서는 대체작물로 연을 선택했고,
연근 등으로 소득을 세 배 이상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저에게는 그 어떤 것들 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함양에 사는 후손들의 살림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말이니까요.
지역주민들은 소득을 얻고, 관광객들은 백련과 홍련 등 아름다운 연꽃들을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상림에는 연밭 외에도 꽃무릇이라고 하는 '석산'이 또 유명합니다.
연이 여름철에 아름다움을 뽐낸다면 석산의 꽃은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는답니다.
초가을 꽃이 피고 진후에야 잎이 나는 석산은 접착제의 역할과 방부제로서의 역할도 해주죠
5월 경 잎이 지고 난 뒤에 알뿌리를 갈아 전분을 채취해 그걸 접착제로 사용했는데, 이 풀로 붙인 한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 탱화의 방부제로도 사용하는 석산은 불가에서 많이 사용하여 사찰 근처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가로서의 최치원의 삶도 참 좋았습니다만 상림을 다시 한 번 돌아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푸르른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상림.
오늘도 그곳에선 천년세월을 거름삼아 새싹들이 자라납니다.